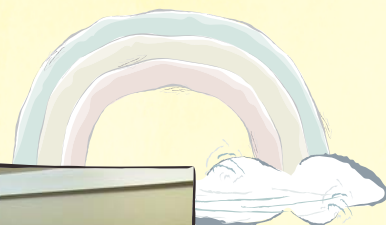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www.pac.or.kr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Speci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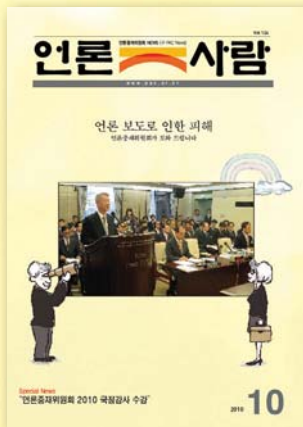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2010 국정감사 수감

2010

10

CONTENTS

2010. October. Vol 124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2010 국정감사 수감
04	국정감사 지상중계	2010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06	위원단상	산에서 보는 꿀불견(이재무 위원)
07	직원마당	희망의 조건(정책연구팀 김창숙)
08	시정권고 후기	'자살 권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기사심의팀 김정민)
09	백승찬의 영화세상	부산국제영화제
10	이런얘기 저런얘기	스파게티? 파스타?(기사심의팀 최은진)
11	기고	대학 언론인으로 살기(이화여대 웹진 'DEW' 기자 김주영)
12	위원회 소식	
13	사건 처리현황	
14	위원동정	



언론중재위원회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발행인 권성 편집인 김용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일 2010년 10월 25일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397-3114, 3000 FAX 397-3069 www.pac.or.kr 편집 (주)노마드월드와이드 인쇄 (주)부광프린팅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0 국정감사 수감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국정감사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재위원회 권 성 위원장은 피감 기관장들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조정·중재 사건 처리 현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의원들은 포털로 인해 매개되는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조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전담 중재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유명 인사들의 자살이 늘어남에 따라 언론이 이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권 성 위원장은 “포털 사건 처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하고, 자살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시정권고와 함께 세미나를 통해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언론사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시정권고 효력강화, 조정신청사건 배당방법 개선,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확인감사는 21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질의 응답 내용 4, 5면)

정리 / 기획팀 사진 / 김태호(총무팀)

▲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권 성 위원장

2010 언론중재위원회

지난 12일 실시된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포털 매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과 자살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자세한 질의 응답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증인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는 권 성 위원장



김성동 의원, 김성태 의원(이상 한나라당)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포털 등 인터넷상의 기사에 대해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잘 눈에 띄지 않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야 하며, 심리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가 왜 심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그 개요 정도는 네티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인터넷 사건의 처리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인터넷 기사에 대한 표시의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에 있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이 빠른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가능한 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

최근 조정·중재 신청 현황을 보면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대상 신청 사건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는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담 중재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포털 관련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많은 연구를 했고, 포털 전담부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건을 처리하고 경험을 축적해 본 뒤 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현재까지는 전담 중재부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성호 의원, 이철우 의원(이상 한나라당), 장병완 의원(민주당)

최근 유명인들의 자살사건이 늘고, 이를 언론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자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을 아직도 기자들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명인의 자살이 늘어나면서 신문들이 더 상세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4년 자살관련 보도의 심의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꾸준히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이 보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동일한 법익침해유형을 반복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시정권고의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시정권고는 권고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상으로 없기 때문에 언론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예전에 비해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국정감사 지상중계



틀림이 없으므로 시정권고에 의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을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전직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이 소속되어 있던 언론사 사건을 해당 중재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중재 신청사건 배당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실제 사건을 배당할 때는 은행알 주춤방식으로 의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일 경우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같은 중재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최문순 의원(민주당)

국가기관이 사실여부가 아닌 의견 기사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언론사를 억압할 목적으로 언론중재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보도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중재신청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문순 의원(민주당)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언론피해 구제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교육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교육기회의 확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의원(한나라당)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해체되고 있으며, 매체별로 선거보도 심의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어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이를 상설화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기구와 관련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기획팀 사진/ 김태호(총무팀), 김민정(홍보팀)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산에서 보는 꿀불건



이재무 위원
(서울제4중재부, 전 뉴시스 편집담당 상무)

나의 취미는 등산이다. 주말마다 가까운 사람들의 결혼식이 없는 한 산에 오른다. 주중에도 시간이 나면 산에 간다. 최근 산에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두 번 봤다. 두 번 다 약수터에서 벌어진 일이다. 첫 번째 얘기는 한 아주머니에 관한 것이다. 서초구 우면산에는 여러 곳에 약수터가 있는데 태극약수터에서 생긴 일부터 얘기하겠다.

8월이니 한창 더울 때다. 친구와 둘이서 양재동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뒷길을 돌아 능선을 피해 오솔길로 땀을 뻘뻘 흘리며 태극약수터에 도착했다. 이곳은 항상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약수터에서 5~6m쯤 떨어진 지점에서 관을 통해 흘러내리는 물로 세수를 할 수 있다. 내가 수건을 들고 세수를 하러 가는데 약수터에 40대 후반의 한 아주머니가 서있고 약수가 떨어지는 옴폭 파인 돌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약수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산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약수가 오염될까봐 약수터에선 손도 못 씻게 하는데 날씨가 덥다고, 사람들이 없다고 애완견을 목욕시키는 장면이 어이가 없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아주머니, 남들이 먹는 약수터에서 개를 목욕시키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을 던지자 이 아주머니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것에 깜짝 놀라더니 애완견을 끌어안고 “우리 집 개는 깨끗해서 괜찮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이런 사람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주머니에겐 깨끗한 개일지 몰라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니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은 삼가 해야 한다”고 충고하자 이 아주머니는 자기의 청결한 개를 내가 무시한다고 불평을 늘어냈다. ‘더 이상 언쟁을 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에서 “아주머니와 싸울 생각이 없으니 그냥 올라가라”며 오른 손으로 가라는 손짓을 하자 이 아주머니 드디어 트집거리를 잡았다는 듯이 “왜 샷대질을 하느냐”고 고함치며 한 판 벌이자는 식이다.

내 친구가 나서서 참견을 하는데 마침 다른 등산객들이 들이닥치자 이 아주머니,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느꼈는지 마지못한 척 개를 안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의 일이다. 이번에는 정상인 소망탐을 지나 방배동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에 유점사 약수터에 들렀다. 이번에는 30세 전후의 젊은이가 약수가 나오는 파이프 밑에 목을 들이밀고 머리를 감고 있었다. 이 청년은 “어이 시원해” “어이 시원해”하면서 옆에 사람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머리감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보다 못한 내가 “이봐요 젊은이, 약수터에선 손도 못 씻게 하는데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을 던지자 “내가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을 하면서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청년의 경우는 행색을 보아하니 산을 자주 찾는 부류는 아닌 것 같았다. 어찌다 산에 왔는데 급경사 길을 오르자니 전신에 땀은 흐르고 들고 있는 페트병의 물로는 몸의 열기를 감당할 수 없는 터에 갑자기 약수터가 보이니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데가...’ 하는 생각에서 허겁지겁 머리부터 들이 밀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어느 책을 보니 마음공부를 하려면 첫째,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것 둘째, 환자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 셋째, 남의 일에 호기심도 갖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말 것 등 세 가지를 지키라고 되어 있었다. 나는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눈꼴 신 것을 참지 못하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몸에 젖은 타성 탓인지 아직 ‘마음공부’의 ‘마’(宰)에도 들지 못한 것인지 헛갈리고 있다.

희망의 조건

얼마 전, 닉 부이치치(Nicholas James Vujicic)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몇 년 전 TV에서 그를 처음 보았는데, 양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밝게 웃으며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짧은 영상이지만, 그를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것은 그 '밝음' 때문이었다. 한눈에 보기에조차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사람이 행복하다니, 그 비결이 궁금했다. 팔다리가 성한 나보다 그가 더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인터넷에서 그의 강연을 찾아 들곤 했었다.

닉은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발가락 두 개가 달린 작은 왼쪽 발만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의사로부터 그의 상태를 전해들은 부모는 매우 절망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면 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줘야 하는 그런 존재였음을 가슴 아파했다. 어린 시절 또한 순탄치 않았다. 아이들은 '괴물'이나 '외계인'이라고 그를 놀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피해 다녀야 했다. 그는 매일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에게 "너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을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하는 부당한 놀림이나 비아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했다. 모든 것은 그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를 더욱 비관적이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 당시 그의 상태를 생각하면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닉은 자기가 가진 조건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한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자신이 자살했을 때 슬퍼할 부모님을 생각하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 닉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는 스케이트 보드, 수영, 서핑을 즐기고, 드럼을 치고, 컴퓨터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다. 하고 싶은 모든 일에 도전하고 삶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변화하자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만나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현재 그는 세계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아 전 세계를 돌며 꿈과 희망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자신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하고,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요 메시지이다. 자신이 할 수 있었다면 "팔다리가 있는 여러분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강연을 들으며 사람들은 강한 감동을 받는다. 이는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를 절망케 했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다. 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사람이다. 만약 그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겼을 것이다. 그가 충분히 그럴만한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희망을 선택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그를 절망시켰던 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더 큰 감동으로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요소로 변화했다.

닉의 강연을 들으며 난 희망의 조건에 대해 생각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희망을 갖기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때때로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말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는 닉의 말과 같이 희망을 갖기로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희망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 향 숙
(정책연구팀)

‘자살 권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김정민(기사심의팀)

얼마 전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늘 환한 미소를 머금고 희망을 전하던 그녀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서일까. 최근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들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살관련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건수는 약 150건에 이른다. 심의를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자살 보도를 접하다보니 어느새 자살사건이 일상처럼 느껴진다. 우울증을 앓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가정불화로 인해, 혹은 순간의 충동으로 자살을 했다는 이들의 소식을 접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살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2,3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때에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유명인의 자살로 인한 모방 자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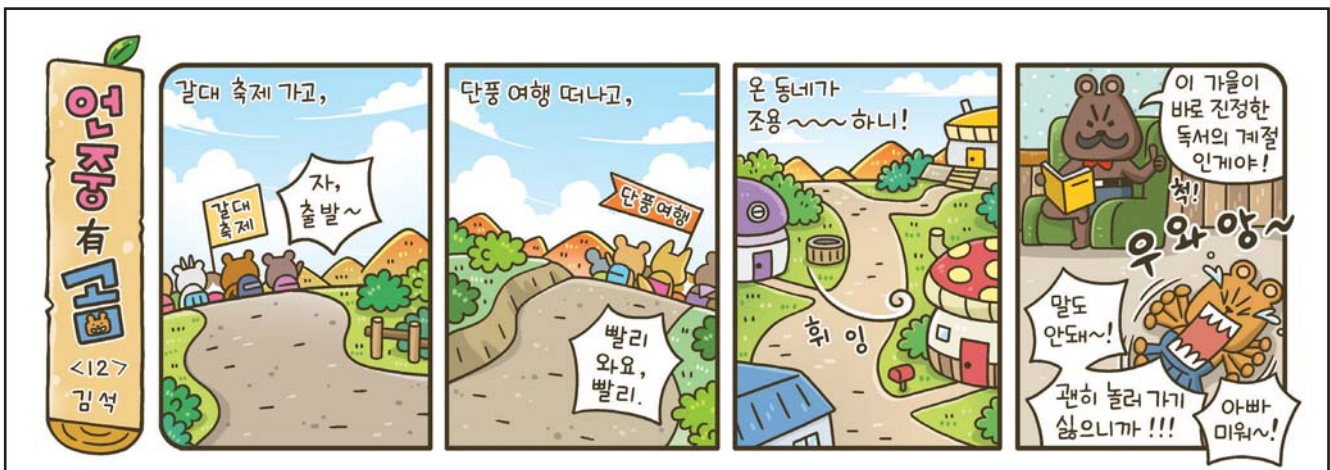
최근 몇 년 새 자살자의 수가 급증한 것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주된 이유겠지만, 저명인사들의 자살 관련 보도의 증가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그 동안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모방 자살의 우려가 높은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해왔다. 특히 2004년부터는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또 자살을 미화하여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보도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도 다 보도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모 연예인 매니저의 자살 보도를 하면서 연예인의 실명을 적시하는 등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해 시정권고를 받은 한 언론사 기자가 이렇게 물어 왔다.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35개 언론사에 대해 모두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답하면서, 자살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살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보도 태도에 대해 자문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누군가에게 ‘자살 권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언론의 자살 보도 관행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백승찬의 영화세상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왼쪽)과 개막작 <산사나무 아래>의 한 장면

한국 영화계에는 ‘해마다 10월이면 충무로가 한산해진다’는 말이 있다. 영화인들이 추석으로부터 2주 후쯤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달려가기 때문이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부산영화제는 7~15일 열렸다. 개막작은 중국 출신 장이머우의 신작 <산사나무 아래>였다. 영화제측은 지난해에 비해 좌석수와 영화 상영편수가 줄어들어갔는데도 관객은 늘어나 내실을 기했다고 자평했다. 올해 영화제가 뜻깊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영화제를 출범부터 이끌어온 김동호 집행위 원장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지킨 해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영화학계와 평단의 중심세력이었던 이용관, 김지석, 전양준, 박광수 등이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창구가 되어줄 영화제를 열자”고 의기투합하면서 부산영화제의 청사진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95년부터 본격적인 영화제 준비에 들어간 이들은 문화체육부 차관과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김동호를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추대하기에 이른다.

출범 직전엔 영화계 안팎에서 회의적인 시선이 없지 않았다. 한국에서 국제 규모의 영화제를 치른 적이 없었을뿐더러, 장소는 서울도 아닌 ‘문화의 불모지’ 부산이었기 때문이다. 예산은 부족했고, 영화제 집행위와 부산시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골머리를 앓아야했다. 해외 영화계의 냉정한 시선도 걸림돌이었다. 작품 판권을 가진 해외의 영화인들은 들도 보도 못한 부산영화제 관계자들을 쉽게 만나주려 하지 않았다.

1996년 우여곡절 끝에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난관은 끊이지 않았다. 독일에서 온 한 게스트는 남포동의 상영관에서 쥐에 물렸다. 영사 사고가 줄을 이었고, 극장 주변의 노점상과 결탁한 조직폭력배가 영화제 집행부를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 냉소와 달리 첫 회 영화제는 성공적이었다. 당시 프로그래머들은 영화제 총 관객수를 두고 5만~7만명까지 내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18만명의

관객이 부산을 찾았다.

부산을 찾는 해외 영화인들이 입을 모아 놀라워하는 점은 극장 시설, 해운대의 풍광, 음식이 아닌 바로 관객의 열정이다. 본격적인 ‘영화 세대’로 성장하고 있던 한국의 관객들은 감독과 배우의 말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에도 두 눈을 부릅떴다. 인기작의 표를 사기 위해 매표소 입구에서

밤을 새는 일도 적지 않았다.

부산영화제가 아시아 영화를 특화했다는 점도 해안이였다. 당시 세계의 영화관계자들은 서구의 영화 언어가 매너리즘에 빠졌으며, 아시아 영화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5세대 감독들이 일찍이 세계 영화계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엔 이란 영화가 주목을 받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의 영화인들이 새로운 영화를 내놓고 있었다.

15년의 세월이 흘러 부산영화제는 쇠락하던 도쿄영화제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자리잡았다.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세계의 영화관계자들은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산을 찾는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영화인들 역시 부산영화제에서 자신의 작품을 상영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긴다.

부산영화제가 이와 같이 자리를 잡는데 김동호 위원장의 공은 결정적이었다. 문화부 차관까지 역임한 전직 고위관료였지만 영화제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백 영화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 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70대의 고령이지만 해외 출장시에는 여전히 이코노미 클래스를 고집하고, 영화제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국내외의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이겨냈다. 부산영화제가 한국 영화제의 고질병인 영화인과 지자체의 마찰 없이 순항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반관료, 반영화인이었던 김동호 위원장의 위상이 큰 몫을 했다.

이제 김동호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부산영화제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내년이면 부산영화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용관 건설도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기의 극장가 일정을 피하느라 영화제 기간을 이리저리 옮겨야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후임 집행위원장이 전임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해 거대해진 영화제를 운영해갈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스파게티? 파스타?

1.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 (X)

2. 파스타 먹으러 갈까? (O)



▲ 필자가 직접 만든
바질 생토마토 봉골레 페델리니

물론 당신이 오늘 반드시 ‘굵기가 약 2mm가 약간 안 되는 긴 면’을 먹고 싶다면, 1번도 맞는 말이다. 파스타는 이탈리아 면류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탈리아에는 수많은 종류의 파스타가 있으며 이들은 굵기와 모양에 따라 구분된다. 손톱만한 모양의 파스타에서부터 넓적하고 얇은 종이모양의 파스타도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카로니, 스파게티는 파스타의 한 종류일 뿐이다.

‘면을 얼마나 잘 삶는가’ 하는 것은 완성된 파스타 요리 맛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조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한다.

우선, 포장용기에 적힌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국산 제품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수입 건면 파스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읽는 방법만 잘 기억해두면 된다. 예를 들어, 스파게티니(spaghettini) 면을 사면 포장용기에 ‘cottura 9 mi.’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어로 9분을 삶으라는 말이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물의 양은 파스타가 잠길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물의 양이 부족하면 삶는 과정에서 파스타 면끼리 서로 붙어 모양새와 식감이 좋지 않다. 파스타를 삶을 때 긴 젓가락으로 한번 휘휘 저어주면 면끼리 뭉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면을 삶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국수는 제조과정에서 간을 하는 반면, 건 파스타에는 전혀 간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파스타를 삶을 때에는 끓는 물에 바닷물 정도의 짠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소금(2~3T 정도)을 함께 넣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파스타를 삶을 때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함께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올리브유를 넣으면 파스타면에 소금 간이 스며드는 것을 오히려 막게 된다. 올리브유를 넣는 경우는 생면이나 넓은 면적의 라자냐를 삶을 때 뿐이라는 점도 참고로 기억해 두자.

여러분도 오늘 당장 알 덴테(al dente, 파스타가 적절하게 삶아져서 씹히는 맛)를 느껴보시기 바란다.

최은진 (기사심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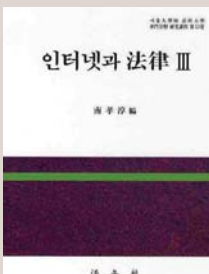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임미숙 (정책연구팀)

인터넷과 법률 Ⅲ

남효순 엮음 | 법문사 | 779페이지



2009년 2학기, 서울대 법대 전문분야 연구과정인 「인터넷과 법률 Ⅲ」의 강의 자료를 책으로 묶었다. 2001년 2학기 「인터넷과 법률」, 2005년 1학기의 「인터넷과 법률 Ⅱ」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설되는 공개과정이었다.

인터넷상의 이슈들과 제반 법률 문제에 당면하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헌법 분야에서 새로 등장한 인터넷 신문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과연 인터넷 포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법적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고있어 주목된다.

대학 언론인으로 살기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세대보다는 뉴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던 우리는 뉴스가 넘치는 시대에서 자라왔다. 그런 세대의 한 사람인 나는 매일 뉴스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내 사고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선에서 그쳤다. 나에게 뉴스는 진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볍고 흥미로운 것이었다. 나와는 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궁금할 뿐이었다.

하지만 뉴스가 나에게 좀 더 무거워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신문과 진실'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그 글을 읽고는 뉴스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 그 글의 요지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론은 외부 세력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뉴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는지,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했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외부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진실을 전할' 기자라는 꿈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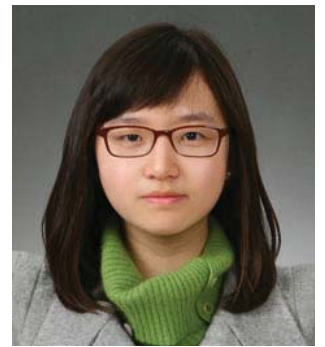
대학에 입학하고 막상 언론학을 배우니 웬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언론의 효과에 대한 각종 이론들과 언론의 'what to think about'을 이끄는 사회의 선구자적인 역할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기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그냥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기자가 되고 싶을 뿐인데, 언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 거대함 앞에 초라해진다. 언론의 큰 역할을 잘 수행할 만큼 내가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을지 가끔은 자신이 없어진다.

학부 내 미디어 웹진 'DEW'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부터는 저러한 부담이 더 실감나게 다가왔다. 교내 웹진이고 사실상 독자도 얼마 없지만 우리 역시 '기자'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대의 신선한 생각을 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한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쓴 문장조차 근거가 없으면 기사에 쓸 수 없었다. 하나하나 코멘트를 따서 객관적 근거를 모아 글을 써야 했다.

하지만 코멘트를 따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학언론이기 때문에 독자가 많지 않아, 큰 언론사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코멘트요청을 받는 사람이나 인터뷰 요청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인터뷰 요청을 위해 모 포털사이트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해 답답하고 슬퍼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면 귀찮고 안 해도 그만일 인터뷰를 쉽게 해줄리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이 수습기자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코멘트를 거절당해 기사 쓰는데 애를 먹는다. 거절도 당하고 기사를 읽기도 하면서 '기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20살이면 가볍고 산뜻한 나이인데 진지하고 무거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가끔은 모든 일을 그냥 즐기며 스쳐 보내고 싶은데, 매달 글을 완성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한다.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이것도 못하면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기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쉽게 포기하지도 못한다. 수습기자로 첫 인터뷰에 벌벌 떨던 내가 안쓰러웠는지 선배 기자들이 토닥여 주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다. 아마도 선배들 모두 나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힘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가 한 대학의 웹진 기자라는 것이 기쁘기도 하다.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얼굴로 사람들 앞에서 '김주영 기자'라고 말하기에 조금은 쑥스럽지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글을 볼 때면 뿌듯하다. 프로 기자같이 성숙한 기사를 써내진 못하더라도,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유연함이 부족하더라도 대학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작정이다. 계속 이 길을 달려가다 보면 내가 찾는 문이 나오지 않을까.



김 주 영
(이화여대 웹진 'DEW' 기자)

「해피 투게더」에 언론중재위원회 등장

9월 30일 방영된 KBS 2TV 「해피투게더 3」(프로듀서 남현주) 프로그램 중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등장해 화제다.

출연자들이 사우나에 모인 동네 아줌마로 분장하여 토크를 벌이는 '묻지마 사우나' 코너에서 MC를 맡은 개그맨 박명수가 특정 출연자들에게만 계속 관심을 주자,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김나영이 '편파진행'이라고 항의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MC 유재석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런 일도 해요?"라고 되물자 김나영이 "이런 거 안해요?"라고 말해 웃으며 마무리되다 는 내용이다.

방송을 본 중재위 직원 및 관계자들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중재위원회가 다뤄지는 것을 보면 언론피해 구제기관으로서의 중재위원회 위상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증거"라며 "그 동안의 꾸준한 홍보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소재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 MBC TV 드라마 「스포츠 라이트」 이후 2년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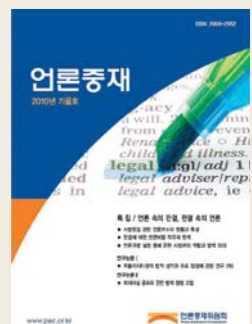


KBS 방송화면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발간

언론중재위원회 회보 계간 「언론중재」 2010년 가을호가 9월 30일자로 발간됐다. '언론 속의 판결, 판결 속의 언론'이라는 특집 주제 하에 '사법판결 관련 언론보도의 현황과 특성'(김창숙), '판결에 대한 언론비평 자유의 한계'(신평), '언론규범 설정 등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과 법적 의의'(김재협) 등 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일반 연구논문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하)'(최승재),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법적 쟁점 고찰'(김재운)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해외실무연수 보고서, 국내외 언론관계 판결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하반기 직원실무교육 실시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실무교육이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원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실무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 실무교육 및 개별 자율교육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외부 교육기관 실무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공개교육 중 각 본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강좌를 선택해 수강하며, 개별 자율교육은 어학, 전산, 프리젠테이션 등 업무와 연관되는 교육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9월말 현재 조정신청 1,797건

사건 처리현황

OCTOBER. 2010 VOL. 124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2010년 9월까지 모두 1,79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502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 121건(동의 91건, 이의 25건, 계속 5건), 조정불성립결정 104건, 기각 110건, 취하 959건(피해구제 767건), 계류 1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1.3%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433건, 신문 414건, 방송 131건, 뉴스통신 33건, 잡지 19건, 기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9월까지 75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74건의 중재결정과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34건, 반론청구 27건, 추후청구 12건, 손해청구 2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9월까지 모두 8차례의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203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자 신원공개 146건, 피의자 신원공개 28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4건, 사생활 침해 3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형사사건 피해자 신원공개 각 2건, 기타 법익침해가 18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12건, 일간지 64건, 뉴스통신 14건, 주간지 11건, 월간지 2건이다.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출범하여 9월 15일 현재까지 총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경남 도의원(거창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나/라 선거구), 전남 곡성군 의원 등 6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선심위는 정기간행물 128개 매체를 자체 심의한 결과 1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으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9월까지 2,009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98건, 타기관 안내가 173건, 재상담 예정 107건, 법적절차 안내 71건, 자체종결 37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일간신문 711건, 인터넷뉴스서비스 668건, 인터넷신문 657건, 방송 388건, 주간신문 307건, 뉴스통신 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9월까지 모두 99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41건, 언론사 20건, 지자체 10건, 대학 9건, 인턴십프로그램 8건, 공사기업 3건, 기타 8건 등이다.



인하대로스쿨 발전위원장 김성

인하대로스쿨 발전위원회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추대

권 성 위원장은 9월 29일 인천 송도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하대 로스쿨 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황우여 국회의원과의 함께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인하대로스쿨 발전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협력과 후원을 통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권 위원장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에서 자라고 지역에서 활동할 우수한 전문 법조인을 많이 배출할 계획"이라며 "지역 사회의 전문가들이 로스쿨 교육에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기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위원

제2기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박동숙 위원(서울제5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사진 왼쪽 세번째)은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제2기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위원장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위원으로 위촉됐다.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국민의 시청권 확보 등을 위해 국민관심행사 선정,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등을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 연임

이동근 위원(광주중재부,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9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으로 연임 위촉됐다. 임기는 1년이다.

담양곡성타임즈 사별연수에서 강의



김덕모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9월 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한 담양곡성타임즈 사별연수에서 지역 언론의 사명과 미디어 윤리 및 법제에 대해 강의했다. 김 위원은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사례를 중심으로 반론권과 피해구제, 손해배상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외주제작 제도 개선 좌담회’ 사회

한군태 위원(서울제5중재부, 경희대 정경대학 학장)은 9월 29일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외주제작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관행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 사회자로 참석했다. 한 위원은 "중편이 선정돼서 콘텐츠 창구가 다원화 되면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행복해진다」 출간

강미은 위원(서울제2중재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 400여장과 간결한 인용문들을 담은 에세이 「그곳에 가면 누구나 행복해진다」를 출간했다. 이국(異國)의 풍물을 담은 사진들이 통찰력이 담긴 이야기들과 함께 엮여져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논어의 자치학’ 워크숍에서 특강

강형기 위원(충북중재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9월 9일 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철곡포럼이 주최한 워크숍 '논어의 자치학'에서 특강을 했다. 강 위원은 "도시가 번창하려면 창조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언론학회장으로 선임

이관열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지난 1일 강원언론학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위원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언론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관계를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정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기사 심의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